



양현 중

5위까지 두발짝 반인데...



김주찬 부상

발걸음 무거운 KIA

5위 LG와 2.5 경기 차이로 8위 ... 절박한 순위 싸움
김주찬 가슴뼈 부상·양현중 안치홍 아시안게임 후유증
오늘 두산 원정 경기 ... 넥센·삼성과 홈경기 이어져



4일 KBO 리그의 순위싸움이 재개된다. 윤영을 건 9월을 보내야 하는 KIA 타 이거즈는 내부

약재와도 싸워야 한다.

KIA는 4일 두산 베어스와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넥센 히어로즈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와 홈경기를 갖고 순위 싸움에 돌입한다.

2연패 속에 8위로 아시안게임 휴식기를 보낸 KIA는 7위 롯데 자이언츠를 1경기차 뒤에서 쫓고 있다. 6위 삼성과는 1.5 경기, 5위 LG 트윈스와는 2.5 경기 차이가 난다.

4위 넥센은 8월 연승 행진 속에 6경기차 밖까지 달아났다. 사실상 KIA는 5위를 목표표로 순위 싸움을 전개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있다.

절박한 순위 싸움이 다시 시작되지만 KIA에는 투·타에 굶직한 변수가 등장했다. '캡틴' 김주찬이 부상으로 순위 싸움 전면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김주찬은 지난 주말 웨이트 도중 가슴뼈 부위에 부상을 입으면서 3일 출발한 잠실행 버스에 오르지 못했다.

김주찬은 지난 8월 11경기에 나와 3개의 홈런 포함 43타수 22안타(타율 0.512)로 19타점을 쓸어 담으며 타격 상승세에 큰 역할을 했었다. 그만큼 김주찬의 부상은 큰 약재다.

올 시즌 가장 꾸준한 모습으로 타선을

■ KBO 중간순위 (3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두산	113	73	0	40	0.646	0.0
2	SK	112	62	1	49	0.559	10.0
3	한화	114	62	0	52	0.544	11.5
4	넥센	118	61	0	57	0.517	14.5
5	LG	116	56	1	59	0.487	18.0
6	삼성	116	54	3	59	0.478	19.0
7	롯데	110	51	2	57	0.472	19.5
8	KIA	110	51	0	59	0.464	20.5
9	KT	113	47	2	64	0.423	25.0
10	NC	116	47	1	68	0.409	27.0

지켰던 안치홍의 아시안게임 후유증도 우려된다.

안치홍은 홍콩전에서 머리에 공을 맞는 부상을 당했지만, 대표팀 여건상 한 경기라도 쉬지 못하고 선발 라인업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허리, 발뒤꿈치 등의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려왔던 안치홍의 쉽 않은 질주는 KIA에는 전력 마이너스가 됐다.

마운드에도 고민이 산적해 있다.

양현중이 대표팀에서도 에이스 역할을 하며 아시안게임 3연패를 견인했지만 KIA 입장에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투혼이었다.

양현중은 아시안게임에서 대만과의 첫 경기와 일본과의 마지막 경기를 책임지면서 대표팀 투수 중 가장 많은 12이닝을 소화하고 왔다. 임기영도 중국전에서 6.1이닝을 책임졌던 만큼 KIA는 선발 두 명의 컨디션과 노심조사를 하고 있다.

헛터로 순위 싸움에 시동을 거는 KIA는 팻던으로 두산전을 풀어갈 생각이다. 양현



지난달 28일 아시안게임 B조 예선 한국과 홍콩의 경기. 9회초 안치홍이 헤드샷을 맞은 뒤 뒷통수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종과 임기영은 직접 컨디션을 확인한 뒤 등판 날짜를 조절할 예정이다.

임창용의 고민도 남았다. 일단 김기태 감독은 임창용에게 선발 기회를 줄 생각이 다.

하지만 8월 최악의 모습을 보였던 임창용에게 무조건 선발 역할을 맡길 수는 없는 상황이다. KIA는 임창용 뒤에 또 다른 선발 자원 한승혁을 배치해 총력전을 벌이는 한편, 선발 경쟁 구도를 형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체력 저하 등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던 한승혁이 지난 31일 경찰청과의 경기에서 3개의 홈런을 맞는 등 두 차례 퓨처리그 등판에서 모두 부진, 선발 계산이 복잡해졌다.

길었던 휴식이 오히려 변수만 늘어버린 KIA의 에타는 순위 싸움이 시작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잡았다 놓친 金이 더 아까워”

사격 진중오·기계체조 김한솔·유도 안창림 등 눈물

2일 폐막한 2018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49개, 은메달 58개, 동메달 70개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불운한 상황이나 사고로 놓친 금메달도 있었다는 점을 떠올리며 아쉬움이 커진다.

사격 황제 진중오(39·kt)는 주축 측의 미숙한 경기 운영 탓에 마지막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꿈을 날렸다.

진중오는 사격 남자 10m 공기권총 결선에서 5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번 대회가 자신의 마지막 아시안게임이라고 했던 진중오는 아쉬움과 역울함에 눈물까지 글썽했다.

예선 2위로 결선에 올랐지만, 결선 시작 직전 시사(시험 사격) 과정에서 진중오의 집중력을 흐드는 일이 발생했다. 시사 마지막 발 결과가 선수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경우 심판은 경기를 중단하고 장치 이상 등을 확인한 뒤 선수에게 무제한 시사를 허용해야 하지만 경기는 중단되지 않았고, 진중오는 단 한 발의 시사 기회만 받았다.

남자 기계체조 김한솔(23·서울시청)은 인사 타이밍을 놓쳐 메달 색이 금빛에서 은빛으로 바뀌었다.

김한솔은 기계체조 남자 도마 결선에서 1, 2차 시기 평균 14.550점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금메달과는 0.062점 차에 불과했다.

심판이 김한솔에게 준 벌점 0.3점이 치명적이었다. 벌점 이유는 '심판에게 인사를 안 해서'다. 국제체조연맹(FIG) 규정에 따르면, 선수는 연기 종료 후 심판에게 목례로 종료 인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김한솔은 완벽한 연기

에 기쁨을 표현하느라 인사하지 못했고, 러시아 심판이 이를 잡아내 벌점을 부과했다.

유도 안창림(24·남양주시청)은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아쉬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창림은 유도 남자 73kg급 결선에서 '천적' 오노 쇼헤이(일본)를 만나 연장전까지 가는 혈투를 펼쳤다.

연장전은 시간제한 없이 절반 이상의 기술을 성공한 선수가 승리한다. 연장전 7분 9초, 오노가 허벅다리 후리기 시도를 했다. 안창림은 잘 버텼지만 심판진은 절반을 인정했다. 석연치 않은 판정에 관중들은 야유를 보냈고, 안창림은 시상대에서 눈물을 쏟았다.

사이클에서는 불운으로 금메달의 꿈을 날리는 일이 두 번이나 일어났다.

4명이 트랙 4km를 돌며 상대 팀을 추월하는 경기인 남자 단체추발은 예선에서 아시아 신기록(3분 56초 247)을 세우며 금빛 전망을 밝혔다.

1라운드 경기에서도 또 다른 신기록을 세우고 승리를 확정하려는 순간이 다가왔지만 한국 선수 두 명이 추돌하며 낙차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낙담한 사이클 대표팀은 충격을 털어내고 남자 매디슨 경기에 나섰다.

두 명이 교대로 달리는 포인트 레이스인 매디슨 대표로 박상훈(25·한국국토정보공사)과 김옥철(24·서울시청)이 호흡을 맞췄다.

두 사람은 대회 중반까지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며 금메달에 다가서는 듯했다. 그런데 박상훈의 자전거 뒷바퀴 타이어가 터지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축구 대표팀 ‘金의환향’ ... 입국장 인파 ‘복적’

1천여명 몰려와 뜨거운 환영
선수들 이름 연호 기념촬영도

2018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수확한 23세 이하(U-23) 축구 대표팀의 귀국 현장이 환영 인파로 넘쳐났다.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 터미널 B입국장 앞. 선수들을 태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1시간 전부터 태극전사들의 귀국 장면을 보려는 사람들로 복적였다.

비행기가 예정보다 30여 분 늦게 착륙한 데다 짐을 찾느라 시간을 보낸 선수들이 입국장을 빠져나온 시간은 9시가 가까워져 있었다. 이 무렵에는 좌우로 늘어선 환영 인파는 1000여 명에 달했다.

경찰과 인천공항 측은 만약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경비 인력을 배치했고, 선수들이 버스를 타는 곳까지 이동하는 동선에 길게 라인을 설치했다.

금의환향하는 태극전사들을 맞는 분위기도 뜨거웠다.

특히 교복을 입은 채 선수들의 이름을 연호하는 여고생 팬들이 눈에 띄었다.

이들 중 일부는 축구 태극전사의 귀국 장면을 보기 위해 학교에 '별갈'(질병결석) 처리하고 공항을 찾은 극성 팬들도 적지 않았다. 인천의 모 학교에 다닌다는 여고생 팬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이승우(엘라스 베로나) 선수와 황의조(감바 오사카) 선수를 보기 위해 아침 6시에 공항에 도착했다"면서 "직접 볼 수 있게 돼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 팬은 손으로 직접 쓴 '보좌 승우(이승우), 빛의조(황의조)'라는 글씨 판을 들어 보이며 기념 촬영에 응하기도 했다.

이렇게 대규모 환영 인파가 공항을 입국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축구 팬들이 2018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남자 축구대표팀 귀국 모습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을 매운 건 울리 슈틸리케 전 감독이 2015년 2월 호주 아시안컵에서 준우승을 일군 이후 3년 6개월여 만이다. 당시에도 1000여 명의 환영 인파가 운집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신태용 전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러시아 월드컵에서 득점을 2-0으로 완파한 후 귀국했던 때도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처럼 분위기가 뜨겁지는 않았다"면서 "이런 좋은 분위기를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A대표팀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입국장에는 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의 총재가 같은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는 바람에 축구 태극전사들을 기다리는 뜨거운 환영 분위기를 직접 현장에서 지켜봤다. /연합뉴스



김학범 U-23 축구대표팀 감독 2020 도쿄 올림픽까지 지휘봉

2018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사냥을 지휘한 김학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 사령탑을 맡는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3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U-23 대표팀 선수들을 마중 나온 자리에서 "김학범 감독님이 아시안게임 우승 목표를 달성했으니 조건을 갖춘 만큼 도쿄 올림픽까지 대표팀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범 감독은 지난 2월 아시안게임 사

령탑에 선임되면서 도쿄 올림픽까지 U-23 대표팀을 지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아시안게임 결과를 갖고 볼 수 있고, 그 평가를 피해야겠다"고 밝혔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국가대표감독선임위원회가 아시안게임 결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겠지만, 김학범 감독님이 성과를 낸 만큼 도쿄 올림픽까지 U-23 대표팀을 지휘하는 데 장애물이 없다"면서 "올림픽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